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부담감과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

방 경 숙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Abstract=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aring Burden,
and Their Preschoolers' Temperament

Kyung-Sook Bang

Division of Nursing Science, Ajou University

Objectives :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aring burden, and their preschooler's temperament, and to explore predicted factors for preschoolers' temperament.

Methods : The sample of this study were 212 mothers of pre-schoolers attending at Child-Care-Centers in three cities, Seoul, Daejeon, and Suwon in Korea. Schaefer's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and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by Thomas and Chess, Child-rearing burden instrument by Han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September 15 to October 31, 2002.

Results : Maternal attitud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mother's education, maternal employment state, and family income. There wa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hild rearing burden and maternal attitude. The significant predictors for preschoolers' difficult temperament type were positive evaluation attitude(OR=0.755) and autonomic attitude(OR=1.2). Maternal attitude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ir preschoolers' temperament in some subscale.

Conclusions : Maternal attitude was affected by emotional factors as well as educational level and income, and preschoolers' temperament was not related with demographic

* 본 연구는 2002년도 아주대학교 의료원 신임교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교신저자: 방경숙(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 5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부 442-721, 전화번호: 031-219-5144, 팩스번호: 031-219-5094,
e-mail: ksbang@ajou.ac.kr)

characteristics, but related with maternal attitude.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promoting positive maternal attitude needs to be developed to make children's temperament more desirably.

Key words : maternal attitude, preschooler, temperament, child-rearing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및 특성을 의미하며, 지적, 정서적 특성을 나타낸다. Schaefer 등(1959)은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이며 종단적으로 연구하여 이론 모형을 발표하였는데,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대 축과 자율-동세 축으로 구분하여 유형화하고 있다. 또한 Baumrind(1971)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재, 권위, 허용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권위적 양육태도를 들고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책임의식이 높다고 하였다(조복희 등, 1997, 재인용).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발달, 학업 성취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자녀의 성격 및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이원영, 1983; 이정화와 고신영, 1998; 최지현, 2001),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초기부터 영향 받을 수 있는 자녀의 기질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최근 간호분야에서도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한 개념으로 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영유아의 기질은 출생 시부터의 선천적인 요인도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 형태 등 경험의 영향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uldin, 1987; 환경자와 빙경숙, 2000). 그러나 아직은 기질의 선천적인 면과 후천

적 영향에 대해 연구자들의 논란이 있는데, Rothbart (1989)는 기질이란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차적으로 생물학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였지만, Goldsmith 등(1987)은 기질이 비록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기는 해도 발달이 진행될수록 경험의 영향이 점점 커진다고 하여 환경에 따른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일차적 환경이 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육태도나 기질은 문화적인 영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외국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우리나라 대상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김중촌, 1997). 또한 부모의 일상생활 또는 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부담감은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연구도 필요하다.

아동양육과 관련된 상담 및 사전건강지도는 아동간호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 최근 외국에서는 간호연구가들에 의해 양육태도나 아동 기질에 대한 연구가 심도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Melvin과 McClowry, 1995). 그러나 국내 간호분야에서는 아직 연구가 매우 미흡하며,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사회성 발달이나 문제행동 유무 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녀의 기질을 파악한 국내 연구는 많이 축적되지 못하여 임상적 적용이 어려운 단계에 있다. 어머니가 부모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기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양육 스타일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Gross와 Conrad(1995)가 언급하였듯이 이제 부모역할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담당해야 할 아동간호전문인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상관성을 파악하고 양육태도, 양육부담감 및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자녀의 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양육태도와 긍정적인 자녀 기질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양육부담감 및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대상은 만 3세 이상 만 6세 이하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였으며 편의 표출로 인한 대표성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2개구와 광역시인 대전시 2개구, 그리고 중소도시인 수원시 2개구에 소재한 유아원 각 1곳씩, 총 6개 유아원을 선택하여 유아원생 어머니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서울, 대전, 수원의 유아원 중 각 2곳씩에서 기관장에게 연구 협조를 요청하고 동의를 얻은 후 선택된 유아원의 만 3~6세 유아의 가정에서 통신문과 함께 설문지를 발송하여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설문지에 답하게 하였으며, 설문지는 유아를 통해 다시 회수하였다. 설문지를 가정에 보낼 때 참여율을 높이고, 참여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간단한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2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였으며, 배포된 설문지 300부중 237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 212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태도

Schaefer 등(1959)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한 설문지는 본래 애성적(중오직) 태도, 거부적(수용적) 태도, 외향적(내향적) 태도, 의존성조장(독립심권장) 태도, 통제적(자율적) 태도, 긍정적(부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어머니의 독립성)태도의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귀영(1998)이 이 중 4개 영역만을 선택하여 영역별 12문항씩 총 48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애정적, 긍정적 평가,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이중 거부적, 통제적 영역은 점수를 역산하여 수용적, 자율적 태도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한 양육태도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0.75였다.

2) 아동의 기질

Thomas와 Chess(1977)에 의해 개발된 만 3~7세 유아의 기질 검사도구(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를 권기남(1999)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부 수정한 부모용 유아기질 검사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상태, 주의 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력의 9가지 기질 범주에 대한 72문항의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권기남(1999)의 연구에서 전체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81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0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기질분류는 Gordon(1981)의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기질 범주 중에서 적응성, 접근성, 규칙성 및 기분상태에 있어서 상위 1/3 집단에 속하거나, 반응 강도에 있어서는 하위 1/3 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순한 기질로 간주하되, 순한기질의 특징 중 적어도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순한 기질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

았다. 그리고 적응성, 접근성, 규칙성 및 기분상태에 있어서 하위 1/3집단에 속하며, 반응 강도에 있어서 상위 1/3집단에 속하는 유아를 까다로운 기질로 간주 하되, 까다로운 기질의 특징 중 적어도 세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까다로운 기질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권기남, 1999, 재인용).

3) 양육부담감

자녀를 키우면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경험을 측정하는 양육 부담감은 한경자 등 (2001)의 자녀돌보기 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이며 도구 개발자가 보고한 Cronbach's α 는 0.8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89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연구자료의 분석은 SPSS Win 11.5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유형의 차이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기질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성적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나이는 만 4세와 5세가 79.1%를 차지했으며, 성별은 남아 48.6%, 여아 51.4%로 비슷한 비율이었고 출생순위는 첫째가 50.8%로 반수를 차지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은 모두 전문대 및 대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미니기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44.3%였다. 가족의 월수입은 대부분 200만원 이상이었으며, 400

만원 이상인 경우도 28%였다.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0.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1).

2. 어머니의 양육태도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직업유무에 대한 만족 여부, 가족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나이와 성별, 출생순위 등 유아 관련 특성과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보다 전문대 및 대졸인 경우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보다는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주부이든 직장인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12
변 수	구 분	실수(%)
유아 나이(세)	3	24(11.4)
	4	87(41.2)
	5	80(37.9)
	6	20(9.5)
성별	남아	103(48.6)
	여아	109(51.4)
출생순위	첫째	105(50.8)
	둘째	92(43.6)
	셋째 이상	14(6.6)
어머니 학력	고졸 이하	62(29.4)
	전문대, 내졸	122(57.8)
	대학원재학 이상	27(12.8)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35(16.7)
	전문대, 대졸	131(62.4)
	대학원재학 이상	44(21.0)
어머니 직업	없음	117(55.7)
	있음	93(44.3)
가족 월수입(만원)	150 미만	13(6.2)
	150~200 미만	31(14.7)
	200~300 미만	60(28.4)
	300~400 미만	48(22.7)
	400 이상	59(28.0)
가족형태	핵가족	170(80.2)
	확대가족	42(19.8)

이든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유의하게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 월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표 2).

또한 유아의 나이에 따른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율-통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유아의 나이가 6세인 경우는 다른 연령군보다 유의하게 통제를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2) 양육부담감과 양육태도

양육부담감과 양육태도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

한 결과 두 변수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애정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가 양육부담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3. 기질의 예측요인

학령전 아동의 기질을 예측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기질 유형 중 미분류를 제외하고 순한 기질로 분류된 41명과 까다로운 기질로 분류된 61명의 총 102명으로 제한하였다. 예측변수로는 양육태도의 하부영역인 애정적, 긍정적 평가, 수용적, 자율적 태도와 양육부담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차이

n=212

변 수	구 분	n	양육태도	t or F	p
유아 나이(세)	3	24	156.25± 9.59	0.691	0.558
	4	88	155.81±13.40		
	5	80	155.39± 9.23		
	6	20	151.75±14.31		
성별	남아	103	155.22±11.60	-0.002	0.998
	여아	110	155.23±12.38		
출생순위	첫째	105	156.44±11.72	0.075	0.940
	둘째 이상	107	154.04±12.23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62	152.27±11.49	3.364	0.036
	전문대. 대졸	123	157.00±11.94		
	대학원재학 이상	27	154.44±12.15		
직업유무 만족	불만	48	152.50±10.55	-1.975	0.050
	만족	135	156.12±12.54		
어머니 직업	없음	117	153.39±12.90	-2.235	0.026
	있음	93	157.06±10.32		
가족 월수입(만원)	300 미만	104	153.31±12.68	-2.231	0.027
	300 이상	107	156.96±11.09		
가족구성	핵가족	170	154.87±12.11	-0.731	0.466
	확대가족	42	156.38±11.53		

표 3. 양육부담감과 양육태도의 상관관계

n=212

	양육태도	애정적	긍정적 평가	수용적	자율적
양육부담감	-0.495**	-0.445**	-0.129	-0.638**	-0.014

** p<0.01

감, 어머니의 학력 및 직업유무, 직업유무에 대한 만족 여부, 가족 월수입을 삽입(enter) 방식으로 투입하였다. 분류표를 살펴보면 순한 기질을 순한 기질로 예측한 비율은 68.6%, 까다로운 기질을 까다로운 기질로 예측한 비율은 82.7%로 나타났으며, 분류의 정확도 평균치는 77.0%였다.

각 예측요인을 순한 기질에 대한 까다로운 기질의 승산비(Odds ratio)로 평가해보면 어머니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까다로운 기질이 될 가능성은 0.755배로 낮아지며, 어머니가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 까다로운 기질이 될 가능

성은 1.2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양육부담감이나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직업에 대한 만족여부, 가족 월수입 등 일반적 사항은 유의한 예측 변수가 되지 못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Cox와 Snell에 의하면 33%, Nagelkerke에 의하면 45%였다(표 4).

4. 양육태도와 기질의 하부영역별 상관관계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과 기질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긍정적 평가, 수용적 양

표 4. 기질의 예측요인

구분	B	SE	Wald	p	OR
애정적 양육태도	-0.038	0.071	0.288	0.591	0.963
긍정적평가 양육태도	-0.281	0.100	7.918	0.005	0.755
수용적 양육태도	-0.121	0.078	2.407	0.121	0.886
자율적 양육태도	0.183	0.075	5.865	0.015	1.201
양육부담감	0.040	0.046	0.746	0.388	1.041
어머니 학력	0.084	0.539	0.024	0.876	1.088
어머니 직업 유 무	0.424	0.704	0.363	0.547	1.528
직업에 대한 만족여부	0.775	0.783	0.981	0.322	2.171
가족 월수입	-0.503	0.340	2.188	0.139	0.605

n=102

* Model summary: Cox & Snell R square=0.33, Nagelkerke R square=0.45

*분류표

	기질분류 예측		확률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순한 기질	24	11	68.6
까다로운 기질	9	43	82.7
전체			77.0

표 5. 양육태도와 기질의 하부영역별 상관관계

	활동성	규칙성	접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상태	주의 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력
애정적	0.005	0.170*	0.215**	0.229**	-0.157*	0.050	0.287**	0.120	0.202**
긍정적 평가	0.003	0.019	0.311**	0.167*	0.062	-0.070	0.131	0.085	0.104
수용적	-0.021	0.138	0.206**	0.242**	0.031	-0.179*	0.293**	0.078	-0.041
자율적	0.036	-0.117	-0.190**	-0.044	0.104	-0.007	-0.145*	-0.006	-0.190**
총점	0.011	0.101	0.188**	0.236**	-0.004	-0.117	0.282**	0.151*	0.051

* p<0.05, ** p<0.01

육태도는 기질 중 접근성, 적응성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기분상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율적 양육태도는 접근성, 기분상태, 집중력 및 지속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5).

고 찰

부모는 아동을 둘러싼 일차적 환경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성장발달은 많은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 아동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전 연구들과 비교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그 결과는 일치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데,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머니의 학력, 직업 유무, 직장을 갖거나 갖지 않은 것에 대한 만족 여부, 그리고 가족 월수입이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보다 전문대 및 대졸인 경우 유의하게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또한 가족 월수입이 높은 경우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박미옥(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더 애정적이고 사울적이며 덜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고 가정의 월수입이 200만원 이상일 때 덜 통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부모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를 메타 분석한 이경화와 고진영(199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이나 사회경제적 상태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홍선과 박경란(199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또한 학령전 아동의 나이에 따른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율-통제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 6세인 경우는 다른 연령군보다 유의하게 통제를 많이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권위주의적으로 된다는 문혁준(1999)의 연구나 4세 아동에게는 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반면 5세 아동에게는 애정을 덜 주며 통제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최시원(1997)의 연구와 같이 취학을 준비해야 하는 6세 아동에게는 더 통제를 많이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직업을 갖지 않은 경우보다는 직업이 있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주부이든 직장인이든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안현숙(2000)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지만, 많은 외국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취업 여부보다는 그에 대한 만족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Scarr 등, 1989; Harrison과 Ungerer, 2002) 같은 맥락의 결과라 하겠다. 또한 Crouter(1984)는 취업모의 경우 직장에서 얻은 관리 기술이 효율적인 자녀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Greenberger 등(1989)은 동료들간의 비공식적인 우정 또한 아동양육에 대해 충고나 준거기준이 필요한 부모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이(문혁준, 2001,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양육부담감은 양육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양육부담감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양육부담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를 적게 보이고 수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성이나 부모역할 만족도는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성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Belsky, 1984; 최영희, 1995; 문혁준, 2001).

본 연구에서 순한 기질에 해당하는 유아는 41명(19.4%), 까다로운 기질 61명(28.9%), 그리고 미분

류 109명(51.7%)이었는데, 권기남(1999)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순한 기질이 30명, 까다로운 기질이 13명으로 순한 기질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 기질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없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부영역 및 양육부담감, 일반적 특성 중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직업유무에 대한 만족여부, 그리고 가족의 월수입을 예측변수로 하여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을 종속변수로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평가와 자율성이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긍정적인 평가태도를 보이는 경우 까다로운 기질이 될 확률이 적어지고 순한 기질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순한 기질이란 상황에 잘 적응하고 낮은 것의 접근을 회피하지 않으며, 생활의 리듬이 있고 기분이 좋으며 정서 표현이 격렬하지 않은 것으로, 긍정적 기질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기질은 그 선후관계가 불분명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공변수로 logistic regression을 시행하였으므로, 유의한 예측변수로 파악된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들은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태도인 경우 오히려 지니기 까다로운 기질을 니디널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까다로운 기질을 지닌 영아는 강압적 통제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연구결과(Lee와 Bates, 1985)와는 다른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연령에 따른 차이로서 영아기에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시에게 통제를 더 많이 하지만 학령 전 아동의 경우에는 통제를 덜하는 것인지 등은 관련 연구들이 적어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주의 깊은 해석과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다만, 자율적인 것과 상반되는 도

치문항으로 통제적 양육태도를 나타내는 문항 중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문항이나 엄격한 제한을 하는 외에도 '장손이나 맏딸 혹은 집안의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문항이라든지 '자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면 싶다',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하여 더 성공할 수 있게끔 격려한다',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나 자녀들이 하는 말을 잘 보살펴서 나쁜 친구나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 도와준다' 등 통제적이기도 하지만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역으로 계산된 자율성에 있어 점수가 낮은 대상자들이 순한 기질을 나타내는 경우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기질을 세분화해서 양육태도 하부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적응성, 기분상태는 어머니의 태도와 많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적응성과 기분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 어렵거나 쉽게 느끼는 변별요인으로 작용했다는 Carey와 McDevitt(1978)의 연구나 유아의 기분과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최영희(1995)의 연구, 그리고 유아의 적응성 차유키질은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태도와 상관성이 있다는 박혜경(1998)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최지현(2001)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적응성은 양육태도와 관련이 없었고 반응성이 온정적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모든 양육태도 영역에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것과는 달리 최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접근성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다른 결과들도 제시되고 있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표미정(1997)의 연구에서는 양육태도와 유아기질의 하부영역간 단순상관관계를 본 결과 유아의 정서성과 자율적 태도간에만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서성과 유사한 개념인 기분상태와 어머니의 자율적 태도간에는 유의한 무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결과를 보였다. 자율적 양육태도에 관한 개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좋거나 싫은 반응을 격렬하게 하는 정도인 반응강도는 어머니의 태도에서 애정적, 긍정적 평가, 자율적 태도에서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반응이 강하다는 것은 아동이 적극적이거나 씩씩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타 연구의 결과 및 해석(Thomas와 Chess, 1983; Crockenberg, 1986)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최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이 격렬하면서 긍정적 기분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어머니의 애정적 태도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높은 반응강도가 반드시 까다로운 기질과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보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력과 월수입, 직업유무와 만족 여부, 양육부담감 등 어머니의 주변 특성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기질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변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평가와 자율적 태도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까다로운 기질이 될 확률은 낮아지거나, 자율적 태도를 보일 때 까다로운 기질이 될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부영역과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 하부영역 간에는 여러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동 건강과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육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며, 아동간호의 한 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부모의 양육태도에 및 행동에 따라 아동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정서적 발달 및 건강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이끌어 가야 하는 아동간호사가 적절한 부모 상담과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에 영향을 받는 아동의 기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을 파악하고 관련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연구 대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12명이었으며 서울, 대전, 수원에서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Schaefer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omas와 Chess의 PTQ(Parent Temperament Questionnaire)를 각각 우리나라에서 번안한 도구와 환경자의 양육부담감 도구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유무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 가족의 월수입이 높은 경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육부담감과 양육태도 사이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세부 영역별로 보면 양육부담감이 높을수록 애정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부영역 및 양육부담감, 일반적 특성 중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직업유무에 대한 만족여부, 그리고 가족의 월수입을 예측변수로, 유아의 기질을 종속변수로 하여 logistic regression으로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평가와 자율성이 학령전기 자녀의 기질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양육태도의 하부 영역과 기질의 하부 영역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애정적, 긍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기질 중 접근성, 적응성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애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기분상태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율적 양육태도는 접근성, 기분상태, 집중력 및 지속력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학력과 월수입, 직업유무와 만족 여부, 양육부담감 등 어머니의 특

성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의 기질은 일반적 특성에 의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긍정적 평가는 기질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요인으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학령전기 자녀가 까다로운 기질을 나타낼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산비; OR=0.755). 또한 어머니가 자율적 양육태도인 경우 오히려 까다로운 기질의 승산비(OR)가 1.2배로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이에 대한 반복연구와 도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애정적, 수용적 태도도 유의한 예측변수는 되지 못하였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승산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아동의 바람직한 기질 형성을 꾀할 수 있도록 아동모성 간호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 문헌

- 곽혜경.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권기남. 유아의 성별 및 기질에 따른 동화 선호도: 낭만적, 폭력적 및 무서운 그림동화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김중훈. 임상적 측면에서 본 기질이론. 용인정신의학보 1997;4(1):21-37
- 문혁준.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1999;37(6):97-107
- 문혁준. 부모역할만족도와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01;39(1):205-219
- 박미옥.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박홍선, 박경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 조사연구. 아동·가족복지연구 1998;2:79-101
- 안현숙.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양육태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교육 2000;9(1):93-102
- 이경화, 고진영.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특성 및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1990년대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98;3(1):61-73
- 이원영. 어머니의 자녀 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 장귀영.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교문서, 서울, 1997
- 최시원. 부모의 양육 태도와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과 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영희. 유아 기질과 어머니 심리적 안정성의 양육태도 설명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95;33(5):187-196
- 최시현.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통제와의 관계. 아동교육 2001;10(1):133-146
- 표미정. 유아의 기질과 양육태도 및 유치원 문제행동 관계. 아동교육 1997;6(2):105-117
- 한경자, 방경숙. 영아 기질과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2000;6(2):132-143
- 한경자, 방경숙, 윤순영.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운영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 서울시 일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 2001;12(1):49-59
- Baumrind D. Harmonious parents and their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971;4(1):99-102
- Belsky J.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1984;55:83-96
- Carey WB, McDevitt SC. Stability and changes in individual temperament diagnoses from infancy to early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978;17:331-337
- Crockenberg SB. Are temperamental differences in babies associated with predictable differences in caregiving? In JV Lerner & RM Lerner (Eds.), *Temperament and social interaction in infant and children*. Jossey-Bass, 1986
- Crouter AC. Participative work as an influence on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984;5:71-90
- Goldsmith HH, Buss AH, Plomin R, Rothbart MK, Thomas A, Chess S, Hinde RA. Roundtable: what is temperament? four approaches. *Child Development* 1987; 58:505-529
- Gordon BN. Child temperament and adult behavior: an exploration of 'goodness of fit'.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1981;11:168-178
- Greenberger E, Goldberg, WA, Hamill S, O'Neil R, Payne CK. Contributions of a supportive work environment to parents' wellbeing and orientation to work.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9; 17:755-783
- Gross D, Conrad B. Temperament in toddlerhood.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995;10(3): 146-151
- Harrison LJ, Ungerer JA. Maternal employment and infant-mother attachment security at 12 months postpartum. *Developmental Psychology* 2002;38(5):758-773
- Houldin AD. Infant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987:131-143
- Lee CL, Bates JE. Mother-child interaction at two years and perceived difficult temperament. *Child Development* 1985;56:1314-1325
- Melvin NM, McClowry SG. Clinical applications of children's tempera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995;10(3):139-140
- Rothbart MK. Temperament and development In GA Kohnstamm, JE Bates, MK Rothbart (Eds.) *Temperament in childhood*. NY: Wiley, 1989
- Scarr S, Phillips D, McCartney K. Working mothers and their families. *American Psychologist* 1989;44(11):1402-1409
- Schafer ES, Bell RQ, Bayley N.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959;95:83-104
- Thomas A, Chess S.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Publishers, 1977
- Thomas A, Chess S. Temperament and parent-child interaction. In W Damon (Ed.),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NY: W. W. Norton & Company, 1983